

마음 축축히 적시는 '백자세계'



설봉 스님 도자기展
인사동 고미술협회전시장/5월 9일~18일

군포교 기금 마련 위해 1백여점 전시

"도자기는 생명입니다. 흙의 감미로운 질감에 빠져 생명을 만들고 그 결실을 판매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저에게는 수행이지요. 현대인들은

화려한 법당에서 부처를 찾고 번듯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만 보지 말고 세상을 거울삼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눈물, 고통, 슬픔, 즐거움 등 희로애락이 있는 '그릇'이 바로 내 얼굴입니다."

설봉 스님(강화도 무애원 주지)이 전시회를 갖는다.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인사동 고미술협회 전시장에서다. 이번에도 목적은 해병대 포교기금 마련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깻벌흙, 논흙, 마사토, 황토, 소나무재, 죽재 등을 원료로 스님이 개발한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 1백여점이 선보인다. 스님이 오랜 인고와 연구끝에 개발한 천연유약을 사용한 도자기들은 명주 옥양목 삼베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색깔로 만들어져 마음에 축축히 젖어드는 한없이 포근한 백자의 세계를 열고 있다.

설봉 스님의 도자기 작업은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8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시회만 50회에 이른다.

스님은 한결같이 전통 가마를 고집한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자화(도자기자체내의 익는 정도)를 확실하게 해 주는 커다란 장점이 있어서다. 그래서 전통가마에서 구워내는 도자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유약이 골고루 배어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

"고풍스러운 곳, 외로운 곳을 찾아가 물레 도와 주려던 도자기를 계속 구워야 합니다. 또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한끼 식사라도 제공하려면 부지런히 도자기를 만들어야죠. 도예의 꽃은 '유약'인데, 국내 도예가들은 유약개발을 등한시하고 일본 유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적불명인 도자기가 양산되는 겁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해탈 등 5가지 주제 구성 홍석창 홍익대 명예교수 개인전



홍석창 홍익대 명예교수가 최근 선보이는 전시작들을 보면 불교냄새가 물씬 난다. 수묵과 채색, 구상

과 추상, 전통과 현대, 형상과 비형상을 자유롭게 대비시키며 정중동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4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갤러리 호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홍 교수는 '해체종합론'을 보여준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그린 55점을 선보인 전시장에는 100~300호 크기의 대작들이 길이 22m, 높이 5m인 갤러리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전시작은 '해탈(解脫)'(사진) '열반(涅槃)' '삼취(三辭)' '난무(亂舞)' '무념무상(無念無想)' 등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된다. 모두 한지 그림이지만 동양화도 아니고 서양화도 아니다.

특히 홍 교수는 '열반' 등 대작 시리즈에서 동양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운생동, 즉 운필(運筆)의 역동성을 아낌없이 과시한다. 이 작품들 앞에 서면 작가가 붓과 화면을 일치해가며 화선 삼매에 든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명 ⑩



그림: 이상배 화백

수락산 내원암

장인성 시인

수락산 드는길에 암자한 채 서있다
이백이십 돌계단 오르는 길이
하늘에 이어진 듯 까마득하다

절집은 왜
깊은 산중에 터를 잡을까

턱을 괴고 물끄러미 한참을 생각하다
어렵듯 경성소리 들은 것일까
몸뚱이가 질질처럼 고요해진다.

내원암(內院庵)-남양주쪽 수락산에 자리한 비구니선원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한암대원 선사

반야심경

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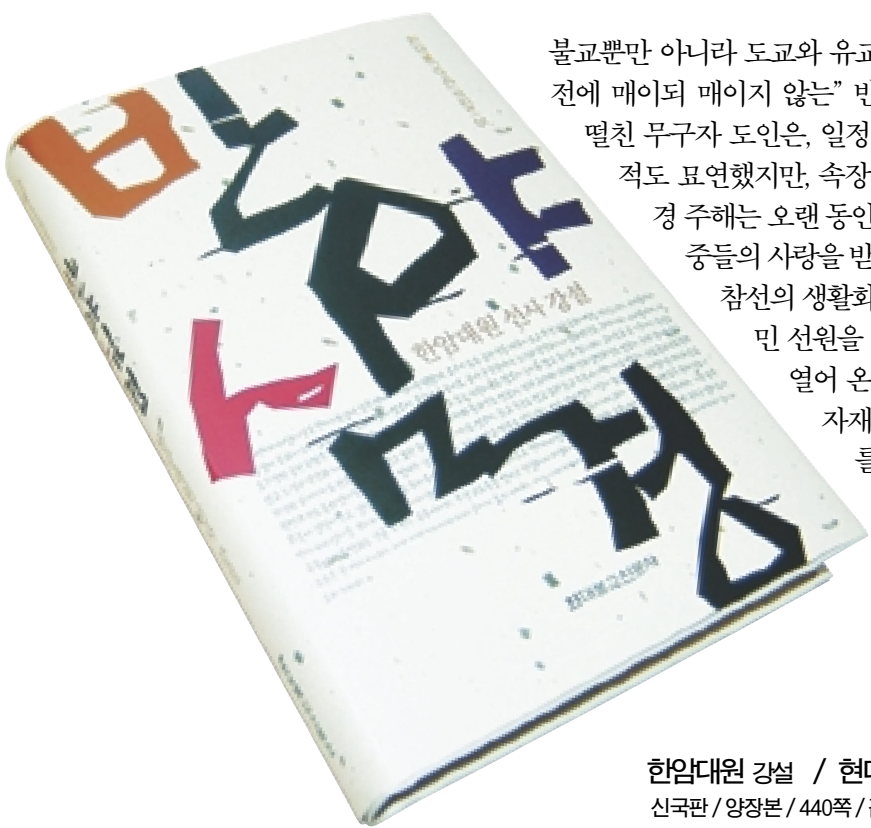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심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음,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계곡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남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당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전력.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 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대현 스님」 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선승禪僧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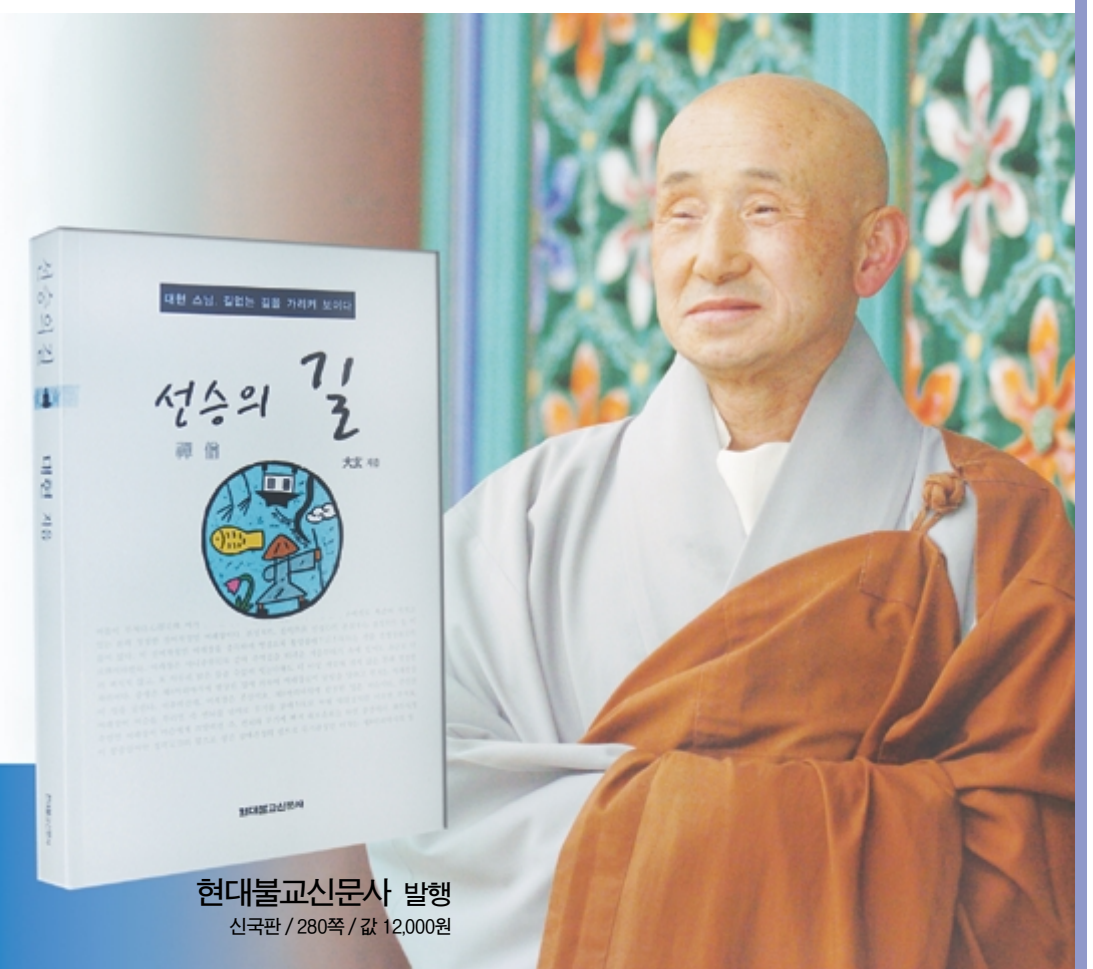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래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래장심으로 업을 굴린다. 비유하자면 여래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내주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에게 고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 본문 중에서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력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